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.5(금) ~ 2024.1.11(목)

제공일시 2023 03 15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.5(금) ~ 2024.1.11(목)

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1. 영국, 2027년부터 수입품 탄소세 부과... EU CBAM 반영

- 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함.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(EU)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)을 반영해 이 법안을 마련했음
-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유리, 수소, 철강 등 배출 집약적 산업 제품의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임
- 또한, 영국 정부는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가 탄소 감축 전략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있음
-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완화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5) 김진영 기자

2. 미국, 실시간 메탄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... 2500억원 대출 승인

- 미국 에너지부(DOE)가 지난 5일(현지시각) 석유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억8900만달러(약 2490억원) 대출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함
- 롱패스 테크놀로지(LongPath Technologies, 이하 롱패스)는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(LPO)으로부터 최대 1억8900만달러(약 2490억원)의 대출 보증에 대한 조건부 약정을 받음
- 이 기업은 미국 휴스턴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량 관리 및 메탄 모니터링 전문 기업임. 롱패스는 미국의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지에 배출 감시 시스템(Active Emissions Overwatch System)을 보급하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함
- 원격 메탄 모니터는 텍사스주, 오클라호마주, 캔자스주, 콜로라도주, 노스다코타주, 뉴멕시코주에 걸쳐 1000여 개가 설치될 예정임

(인팩트는 2024.1.9) 송준호 기자

3. 유럽 위원회, 2040년 기후 목표 제안 예정

- 유럽 위원회가 내달 6일 2040년 기후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유랙티브가 지난 4일(현지시간) 밝힘
- 유럽기후법에 따르면, EU는 2030년까지 55% 탄소 감축, 2050년까지 100% 탄소중립을 약속하고, 올해 안에 2040년 중간 목표치를 제안해야 함.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%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음
- 하지만 유럽 환경기관(EEA)은 지난 12월 유럽이 2030년 기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, 특히 에너지 소비, 순환경제, 친환경 농업 부문에서의 기후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힘
- 이에 2040년 EU 기후 목표 향방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좌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
- EU 27개국의 환경 장관들은 오는 16일 첫 번째 비공식 환경 장관회의에서 2040 목표 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

(인팩트는 2024.1.8) 김환이 기자

1. 'CCUS법' 국회 본회의 통과... "신산업 육성·탄소중립 기대"/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... '중개업' 신설

- '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이하 CCUS법)'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[\(MTN뉴스 2024.1.9\) 유주엽 기자](#)
-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·공표 및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△이산화탄소 공급특례 △전문기업 확인 △기술 인증 △R&D 지원 △창업 지원 △신산업 발굴 지원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음
- 정부는 CCUS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관련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국회 의결 이후 1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임
- 한편,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'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
- 개정안은 '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'을 신설하고, 무상할당 비율을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도록 해 사실상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도록 했음

2. 정부, NDC 고려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손 본다... NDC 달성에 빨간 불/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... 8일부터 공모

-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로 함 [\(ESG경제 2024.1.5\) 이신형 기자](#)
[\(연합뉴스 2024.1.7\) 이재영 기자](#)
-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"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(23.4)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"고 밝힘
- 정부도 4일 마련한 '2024년 경제정책 방향'에서 "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(BM) 할당을 확대하고 배출권의 과다할당을 방지하는 등 NDC를 감안한 '제4차 기본계획'을 2024년 내 수립하겠다"고 함
- 한편, 탄소중립 설비 교체·설치비를 지원받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환경부가 7일 밝힘.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천202억원이 편성됨

3. 정부, 2030년대 SMR 분야 '글로벌 톱 3' 달성 목표... i-SMR 국회 포럼

- 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(SMR) 분야에서 오는 2030년 이후 글로벌 '톱 3'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음 [\(영남일보 2024.1.6\) 송종욱 기자](#)
[\(에너지경제 2024.1.5\) 전지성 기자](#)
-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(i-SMR) 개발사업단장은 i-SMR 사업 추진 일정으로 올해 4월 i-SMR 표준설계 착수, 내년 사전안전성 검토 통과 및 SMR 건설 준비, 2029년 준공 등을 제시함
- 김한곤 단장은 "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캐나다의 공급자 설계 검토 등 해외 설계 인증도 조기에 추진하겠다"고 밝힘
- GS건설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 국내에서 i-SMR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, 최종 사업안 확정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동 추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

4. 공급망 불확실성 타개... 핵심 품목에 10조 규모 기금 조성한다

- 정부가 올해 글로벌 '자원 무기화'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·관리하고,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함.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힘 [\(뉴스1 2024.1.4\) 이정현 기자](#)
- 주요 내용을 보면,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비함. 또,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,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임
-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를 얻은 뒤 수출입은행을 전담조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용에 나선다는 구상임
-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'공급망 다변화'도 병행 추진함

1. BMW그룹, 뮌헨공장에서 순수 전기차 방식 생산 첫 번째 공장

- BMW그룹은 뮌헨공장이 전 세계 생산에서 순수 전기차 방식 생산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공장이 될 것이며, 2027년 말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
- 현재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1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, 이 중 절반 가량만 순수 전기차임
- BMW그룹은 완전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6억5000만유로(약 9322억원)를 투자해 물류 공간을 갖춘 차량 조립공장 및 새로운 차체 공장 등 4개 건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

(ESG투데이 2024.1.10) 수잔 라헤이 기자

2. MS, 한화큐셀 미국 태양광 공급망 개발 지원 8년간 전략적 제휴

- MS와 한화큐셀이 MS의 기후 및 재생에너지 목표와 미국 태양광 공급망 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산 태양광 패널 및 서비스 12GW 공급 등을 포함한 8년간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함
- 지난해 양사는 2.5GW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. 이번 계약은 2023년 초 한화큐셀이 25억달러(약 3조 2775억원)의 미 태양광 공급망 구축 투자계획과 더불어 한화큐셀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임
- 한화큐셀은 2032년까지 MS의 프로젝트에 매년 약 1.5GW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임. 이는 연간 18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임

(ESG투데이 2024.1.8) 마크 시겔 기자

3. GM, 정부 보조금 탈락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 인센티브 제공

- 미국 내 1위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(GM)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자사 전기차 구매자에게 한 대당 7500달러(약 983만원)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3일(현지시간) 밝힘
-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는 올해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, 캐딜락 리릭과 세비 블레이저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함
- GM은 이에 따라 미 전역의 딜러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이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전함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4) 국기연 특파원

4. H&M, 방글라데시 해상풍력 투자... '공급망 탄소저감'

- 스웨덴 H&M 그룹이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투자 중임
- 약 500메가와트(MW) 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되면 2041년까지 방글라데시 국가 전력의 40%를 공급하며 연간 탄소배출량을 72만5000미터톤 감소시킬 전망이다
- 그린비즈에 따르면, H&M은 재생에너지 전문펀드 '코펜하겐 인프라 파트너스(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)'와 패션브랜드의 기후정책을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 '글로벌 패션 어젠다(Global Fashion Agenda)'가 구성하는 1억달러(약 1311억원)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동자금 중 일부를 투자할 예정임

(한국섬유신문 2024.1.8) 민은주 기자

5.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, 인도에 '연간 15만대' 공장 설립 추진

- 베트남 전기차업체 빈패스트가 인도에 생산 시설을 지음
-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, 빈패스트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와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전달 체결함
- 투자 규모는 최대 20억달러(약 2조6천억원)로, 연간 생산 대수는 15만대에 달함. 빈패스트는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

(연합뉴스 2024.1.7) 김범수 기자

1. 현대차, 인도 타밀나두에 '1조원 추가투자' 수소 자원 센터 설립

- 현대자동차가 1조원가량을 투자해 인도에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. 8일 업계에 따르면, 현대차는 7일(현지시간) 타밀나두주 주정부와 '친환경 전환 및 미래 신사업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'을 체결함
- 이번 MOU에 따라 현대차는 타밀나두주에 618억루피(약 9800억원)를 투자해 수소 자원 센터 (Hydrogen Resource Centre, HRC)를 마련하기로 함
- 현대차는 이번 투자와 더불어 현지 친환경 시장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신규 모델 출시도 준비하고 있음
- 일단 2025년 해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 모델 크레타 기반 전기차 '크레타EV'를 추가한다는 계획임.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차량(FCEV) 넥소 출시를 위한 파일럿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

(더구루 2024.1.8) 윤진용 기자

2. 삼성전자-테슬라, '스마트싱스 에너지' 협업/"배터리 끝판왕이네" 삼성전자, 中서 에너지 밀도 높은 '리튬공기전지' 특허 취득

-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테슬라와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발표한다고 7일 밝힘
- 이번 협력은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최초 협업 사례로, 삼성 스마트싱스를 테슬라의 △태양광 패널 △파워월(Powerwall,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) △전기차(EV) 등과 연결해 앱 상에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됨
- 한편,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'리튬공기전지' 특허를 취득함.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(현지시간) '혼합도체-리튬공기전지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'를 등록함

(남도일보 2024.1.7) 고광민 기자

(M투데이 2024.1.5) 최태인 기자

3. 포스코,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에 수소 생산 공장 건설...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전초기지

- 포스코는 독일의 린데와 함께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에 수소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함. 이 협약은 포스코가 멕시코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함
- 4일(현지시간) 멕시코 지역지 엘 솔 데 탐피코(El Sol de Tampico)에 따르면, 린데는 포스코의 연속용 용아연도금강판(CGL) 공장 내에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할 예정임. 이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는 포스코에 공급돼 강판 아연도금 공정에 사용될 예정임
- 포스코가 린데와 협력을 결정한 것은 강판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됨

(글로벌이코노믹 2024.1.5) 홍정환 기자

4. 대한항공, 바이오항공유 글로벌 발 넓힌다... 탄소배출 저감에 속도

- 대한항공이 환경에 친화적인 지속가능항공유(SAF) 투입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다해 오는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'글로벌 넷 제로(Net-Zero)' 기업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
- 대한항공은 일본계 글로벌 물류 기업 유센로지스틱스와 SAF 사용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힘
- 양사는 아시아 지역 내 SAF 사용 활성화와 인식 제고에 뜻을 함께하고, 항공 물류 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로 함

(아시아투데이 2024.1.10) 박원준 기자

(뉴스락 2024.1.10) 황민영 기자

5. LG화학, 美 ABS 컴파운드 공장·CS센터 2월 본격 가동

- LG화학이 미국 고부가합성수지(ABS) 공장과 CS센터를 다음달 본격 가동함. 미국 라벤나 시의회는 허가를 받아 오하이오 소재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
- 5일 라벤나 시의회에 따르면, 이 의회는 지난 2일(현지시간) 정기 회의에서 퍼스트에너지의 전기 공급 권한을 현지 시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함
- 퍼스트에너지는 LG화학의 ABS 컴파운드 공장과 CS센터에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
(더구루 2024.1.5) 오소영 기자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.5(금) ~ 2024.1.11(목)

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캐나다, 플라스틱 데이터 등록소 출범

- 캐나다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레지스트리(Federal Plastic Registry, 플라스틱 데이터 등록소)를 출범할 계획임
- 캐나다 정부는 “플라스틱 생산자들이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레지스트리 설립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, 생산부터 폐기까지 수명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을 추적할 계획”이라고 발표했다고 3일(현지시각) ESG투데이가 밝힘
-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, 새로운 연방 플라스틱 레지스트리는 캐나다의 플라스틱 오염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계획 중 일부임. 캐나다는 연간 44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며,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전체의 9%에 불과함
- 이렇게 플라스틱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, 전국적으로 통일된 플라스틱 데이터를 제공해 소비자와 기업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임
- 새로운 플라스틱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생산자들은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, 플라스틱의 이동 경로,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의 처리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함
-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플라스틱 레지스트리에서는 플라스틱의 범주를 포장, 일회용품, 가전제품, 전자제품, 건축 소재, 타이어와 섬유 등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플라스틱을 다루게 됨
-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가 실시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임.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 요구사항, 의무적인 라벨링 규칙, 플라스틱 레지스트리 출범 등을 발표한 바 있음
- 캐나다 정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공청회 기간을 가진 후 해당 정책을 시행할 방침임
- 한편,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예상된 ‘유엔 플라스틱 협상’이 올해 4차, 마지막 5차까지 예상되면서 각 국가와 기업의 플라스틱 정책도 주목받고 있음
- 일례로 독일은 지난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승인한 바 있음.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등록하고, 2025년부터 특별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함. 음료 컵, 비닐봉지 및 포장재뿐 아니라 담배 필터, 풍선 등도 이에 해당됨
- 독일 연방환경청은 현재 DIV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,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부담금(SUP)을 매기기 위한 플랫폼으로 알려짐

(임팩트는 2024.1.5) 홍명표 기자